

한국노동패널조사 2017년 예비표본 구축 개요 및 현황

이혜정 |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(snp625@kli.re.kr)

KLI PANEL *Brief*

-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신규패널 표본 추가를 위해 2017년 예비표본 6,034가구를 구축하였음.
- 2017년 예비표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.
 - 2017년 예비표본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25.1%, 서울이 22.7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부산(6.1%)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% 이하로 낮은 편임.
 - 가구원수별 분포의 경우, 예비표본은 2인 가구가 33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1인 가구가 21.5%를 차지함.
 - 주택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, 예비표본은 아파트가 48.6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, 다음으로 단독(22.1%), 다세대(19.1%), 그리고 연립(6.2%) 순으로 나타남.
 - 가구주의 경우 남성인 비중이 76.9%로 상당히 높으며 평균 연령은 약 57세이고, 가구원의 경우 성별의 비중은 비슷하며, 평균 연령은 약 44세인 것으로 나타남.
 - 가구 총소득은 4,044만 원이며,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 4,138만 원으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기타소득(2,555만 원), 부동산소득(1,385만 원), 사회보험소득(939만 원), 이전소득(486만 원), 그리고 금융소득(406만 원)의 순임.

1. 연구 배경 및 분석 목적

-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에 처음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2009년에 1,415가구를 표본 추가하였으나,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널대상자의 고령화, 추적실패, 이탈 및 소멸 등으로 인하여 패널 마모가 진행되고 있음.
- 변화된 모집단의 특성 반영 및 마모된 표본 보완 등의 목적을 위하여, 2018년 5,000가구를 표본 추가하여 신규패널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.
- 신규패널을 구축하기 전, 2017년은 6,034가구를 예비표본으로 구축하였음.
 - 예비표본의 구축은 패널 초기의 표본이탈을 극복하여 패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.
- 본 원고의 목적은 2017년 예비표본 구축 과정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,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검하는 것임.

2. 2017년 예비표본 구축 배경 및 조사방법

- 추가표본 구축 시 통계청의 ‘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’ 자료가 활용되는데, 해당 자료의 공표 연기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표본에 대한 조사 착수가 지연되는 상황이었음.
 - 단축된 조사기간 내에서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함.
-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4가지 방안들에 대한 장·단점을 살펴보고(표 1 참조),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2017년에는 예비표본을 구축하는 「방안4」로 결정함.
 - 「방안1」 5,000가구 신규표본 구축 시, 기존 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하는 방안
 - 「방안2」 5,000가구 신규표본 구축 시, 조사도구를 다양화하는 방안
 - 2017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가구원들에 대한 개인설문은 대면면접이 아니라 전화·온라인조사 등을 병행하는 것임.
 - 「방안3」 5,000가구 신규표본 구축 시, 설문 분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
 - 「방안4」 2017년은 예비표본으로 6,000가구를 구축하고, 2018년은 신규표본으로 5,000가구를 구축하는 방안
 - 2017년 예비표본의 조사방법은 기존 조사보다 축소한 형태로 진행함.
 - 조사대상과 설문 분량 축소 등으로 절감된 예산이 발생하므로, 예비표본은 신규표본보다 1,000가구 추가 구축 가능함.
 - 1차년도 패널탈락률이 약 15%라는 것을 감안하면, 2018년 신규표본 5,000가구 시작을 확보할 수 있음.

〈표 1〉 추가표본 조사방법과 관련한 4가지 방안들의 장·단점 비교

방안	장점	단점
1	원칙상 바람직하나, 현실상 불가능	· 조사기간이 해를 넘기면서, 설문조사 시 회고적 오류 발생 및 응답자의 피로도 불만제기 가능성 · 조사시기가 기존 조사 패턴과 상이하여 통계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
2	개인별 접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조사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짐	· 최초 조사 시 대면면접조사로 하지 않아서 전화·온라인조사를 고수할 가능성 · 설문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수 있음
3	설문지 분량의 최소화로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짐	· 조사기간 단축효과도 없음 · 조사비용 절감효과는 없음
4	신규패널 구축 전 예비표본을 구축했기 때문에, 1차년도(2018년) 조사부터 안정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므로 패널유지율에 도움이 됨	· 해를 넘길 경우, 2번 응답한 가구는 응답 피로도 발생할 수 있음 · 예비표본 탈락률의 무작위적 발생에 따른 자료 왜곡 우려

- 최종 결정된 「방안4」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.
 - 첫째 단점의 경우, 2017년 예비표본 구축에서는 가구 내 1명만 응답할 뿐만 아니라 설문 분량도 축소된 형태이므로 응답 피로도 크지 않을 것임.
 - 둘째, 2018년 신규패널을 구축할 때 할당된 목표표본 기준을 관리하며 진행하므로 해결할 수 있음.
- 다음 <표 2>는 2017년 예비표본 조사방법을 기존과 비교한 것으로, 2017년 예비표본 조사방법은 기존과 상이하게 진행하였음.

- 가구를 처음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조사도구는 종이설문(PAPI)을 사용함.

〈표 2〉 2017년 예비표본과 기존표본의 조사방법 비교

		2017년 예비표본	기존표본
조사대상		가구 및 가구 내 가구원 1명	가구 및 가구 내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
설문지 구성	가구용 설문	기존 설문 내용과 동일	가구원 관련 정보, 주거, 사교육, 소득, 자산, 소비, 부채 등
	개인용 설문	기존 설문과 다르며,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8문항으로 간략하게 구성	유형 ①~⑧, 취업자, 미취업자 관련 설문
	부가조사 설문	×	의사결정
조사도구		종이설문 (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: PAPI)	컴퓨터를 이용한 설문조사 (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: CAPI)

3. 표본설계¹⁾ 과정

- 표본들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가구 조사구임.
- 표본설계는 기존 패널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, 과정은 다음과 같음.
 - (단계1)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 ‘광역시도, 동읍면부 및 주택유형(층)’에 따라 규모를 설정함.
 - (단계2) 표본배분은 비례배분을 사용하여 목표 통합패널 규모를 설정함.
 - (단계3) 층별로 기존 패널(19차 응답 가구 기준)을 우선 확정된 후, (단계2)의 표본배분에 따라 층별로 부족한 표본 만큼 추가 추출 실시함. 즉 예비표본 규모는 층별로 목표 통합패널 규모에서 기존 패널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함.
- 표본추출 방법은 2단계 층화집락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이며 과정은 다음과 같음.
 - (단계1) 층별 병합조사구를 가구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조사구 600개를 추출함.
 - (단계2) 표본조사구 내에서 10가구를 계통추출하여 표본가구를 추출함.
 - 조사구 내 접근이 어려워 조사가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, 표본조사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예비 표본조사구용으로 3배수인 1,800개를 추출함.

4. 실사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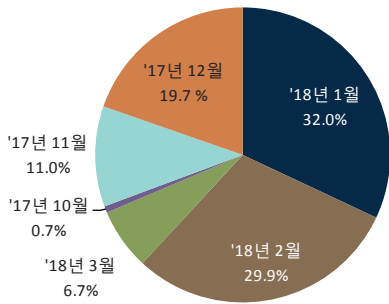
- 2017년 예비표본 실사기간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로 약 4개월 정도임.

1) 2017년 예비표본 설계 과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박민규·변종석(2017), 「제2장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 추가 연구」, 김유빈 외, 『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(VII)』, 한국노동연구원 참고.

- 예비표본 구축 관련 사전 준비 과정으로 기존 한국노동패널 20차년도 조사 실시(2017년 4월 3일~2017년 11월 26일)보다 시작이 늦은 편이었고, 해를 넘겼으나 기간은 짧은 편에 속함.
- 실사는 2017년 12월(19.7%), 2018년 1월(32%)과 2월(29.9%)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해당기간 약 81%가 완료됨 (그림 1 참조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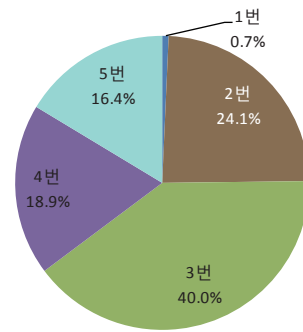
- [그림 2]는 조사성공 가구의 방문 횟수에 대한 결과로 3번이 40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2번(24.1%)이 차지함.
- 첫 방문하여 성공한 경우는 0.7%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표본 구축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.

[그림 1] 실시기간에 따른 조사 진행률



자료 : 2017년 예비표본 자료.

[그림 2] 조사성공 가구의 방문 횟수



자료 : 2017년 예비표본 자료.

- <표 3>은 600개 조사구에서 조사구당 구축한 가구수의 분포이며, 10가구를 구축한 조사구가 62.8%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조사원칙에 맞게 잘 구축되었음.
- 조사구당 평균 약 10가구를 구축했으며, 최소 4가구부터 최대 16가구까지 분포되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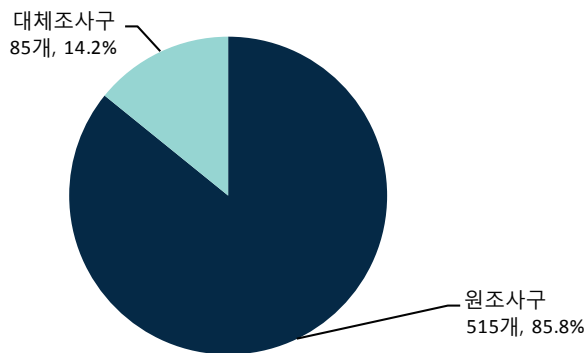
<표 3> 조사구당 구축한 가구수 분포

가구수	조사구수	
	빈도(개)	%
4	1	0.2
5	1	0.2
6	12	2.0
7	28	4.7
8	34	5.7
9	32	5.3
10	377	62.8
11	31	5.2
12	33	5.5
13	29	4.8
14	19	3.2
15	1	0.2
16	2	0.3
전체	600	100.0

자료 : 2017년 예비표본 자료.

- [그림 3]을 보면 조사구의 약 86%가 원조사구에서 성공하여 조사구 대체(약 14%)는 많이 일어나지 않음.
- 조사구 대체는 조사가 불가능한 특수 상황에서만 하도록 하였으며, 85개 조사구의 대체 사유를 보면 강력거절로 조사 성공 불가능이 54.1%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음(표 4 참조).
 - 재개발·재건축 및 접촉 불가능이 각각 15.3%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함.
 - 상업지역, 종교시설 관련 숙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거나, 공장 또는 대형주차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조사 가능 가구가 없는 경우도 9.4%를 차지함.

[그림 3] 조사구의 원·대체 비중



자료: 2017년 예비표본 자료.

<표 4> 조사구 대체 사유

		빈도(개)	비중(%)
강력거절로 조사 성공 불가능		46	54.1
재개발·재건축		13	15.3
접촉 불가능	대학교 원룸촌	9	15.3
	관사 또는 원룸	3	
	혁신도시	1	
조사 가능 가구 없음		8	9.4
기타	외국인 거주지역	4	5.9
	실제 주소와 가구명부 불일치	1	
전체		85	100.0

자료: 2017년 예비표본 자료.

5. 2017년 예비표본 구축 현황

- <표 5>를 보면, 2017년 예비표본은 목표표본(6,000가구)보다 34가구 추가된 6,034가구를 구축하였음.
- 광역시도, 동읍면부 및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전, 인천, 경기도와 충북에서는 목표표본보다 약간 부족한 편이지만, 전반적으로 할당된 목표표본과 비슷한 분포를 가짐.

〈표 5〉 목표표본에 따른 예비표본 구축 현황

(단위: 가구)

		2017년 예비표본(a)			목표표본(b)			차이=(a)-(b)		
		계	보통	아파트	계	보통	아파트	계	보통	아파트
전국	소계	6,034	3,063	2,971	6,000	3,110	2,890	34	-47	81
	동부	4,958	2,279	2,679	4,930	2,330	2,600	28	-51	79
	읍면부	1,076	784	292	1,070	780	290	6	4	2
서울	소계	1,372	800	572	1,350	800	550	22	0	22
	동부	1,372	800	572	1,350	800	550	22	0	22
	읍면부									
부산	소계	370	150	220	370	150	220	0	0	0
	동부	360	150	210	360	150	210	0	0	0
	읍면부	10		10	10		10	0		0
대구	소계	300	140	160	300	140	160	0	0	0
	동부	280	140	140	280	140	140	0	0	0
	읍면부	20		20	20		20	0		0
대전	소계	200	77	123	200	90	110	0	-13	13
	동부	200	77	123	200	90	110	0	-13	13
	읍면부									
인천	소계	294	123	171	300	140	160	-6	-17	11
	동부	287	116	171	290	130	160	-3	-14	11
	읍면부	7	7		10	10		-3	-3	
광주	소계	190	70	120	190	70	120	0	0	0
	동부	190	70	120	190	70	120	0	0	0
	읍면부									
울산	소계	100	40	60	100	40	60	0	0	0
	동부	80	30	50	80	30	50	0	0	0
	읍면부	20	10	10	20	10	10	0	0	0
경기도	소계	1,517	733	784	1,500	740	760	17	-7	24
	동부	1,222	529	693	1,210	540	670	12	-11	23
	읍면부	295	204	91	290	200	90	5	4	1
강원도	소계	200	110	90	200	110	90	0	0	0
	동부	110	50	60	110	50	60	0	0	0
	읍면부	90	60	30	90	60	30	0	0	0
충북	소계	160	66	94	160	80	80	0	-14	14
	동부	100	24	76	100	40	60	0	-16	16
	읍면부	60	42	18	60	40	20	0	2	-2
충남	소계	190	91	99	190	90	100	0	1	-1
	동부	80	20	60	80	20	60	0	0	0
	읍면부	110	71	39	110	70	40	0	1	-1
전북	소계	220	100	120	220	100	120	0	0	0
	동부	160	50	110	160	50	110	0	0	0
	읍면부	60	50	10	60	50	10	0	0	0
전남	소계	160	100	60	160	100	60	0	0	0
	동부	70	30	40	70	30	40	0	0	0
	읍면부	90	70	20	90	70	20	0	0	0
경북	소계	310	201	109	310	200	110	0	1	-1
	동부	169	70	99	170	70	100	-1	0	-1
	읍면부	141	131	10	140	130	10	1	1	0
경남	소계	330	190	140	330	190	140	0	0	0
	동부	206	90	116	210	90	120	-4	0	-4
	읍면부	124	100	24	120	100	20	4	0	4
제주	소계	90	62	28	90	60	30	0	2	-2
	동부	61	33	28	60	30	30	1	3	-2
	읍면부	29	29		30	30		-1	-1	
세종	소계	30	10	20	30	10	20	0	0	0
	동부	10		10	10		10	0		0
	읍면부	20	10	10	20	10	10	0	0	0

주 : 2017년 예비표본 중에서 일반/아파트 불일치 60가구, 동부/읍면부 불일치 22가구 존재하여 추후 자료 확인 필요함.
 자료 : 2017년 예비표본 자료.

6. 분석자료 및 분석집단

- 분석자료로는 2017년 예비표본 및 한국노동패널조사 1-20차 학술대회용 자료를 사용함.
- 분석집단은 총 3개 집단으로 '17예비, '17예비+기존(전체)과 '09통합을 고려했으며, 각 집단별 정의는 다음과 같음.
 - '17예비: 2017년 구축된 예비표본으로 6,034가구임.
 - '17예비+기존(전체): 예비표본(6,034가구)과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(2017년) 자료에서 98표본·통합표본 구분 없이 응답을 완료한 표본(7,066가구)을 모두 합한 것으로 13,100가구임. 기존 한국노동패널조사 통합표본²⁾의 정의를 따라서 적용해 본 것임.
 - '09통합: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(2017년) 자료에서 통합표본 6,685가구임.
- '17예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으며, '17예비+기존(전체)과 '09통합도 함께 비교분석하였음(가중치 미적용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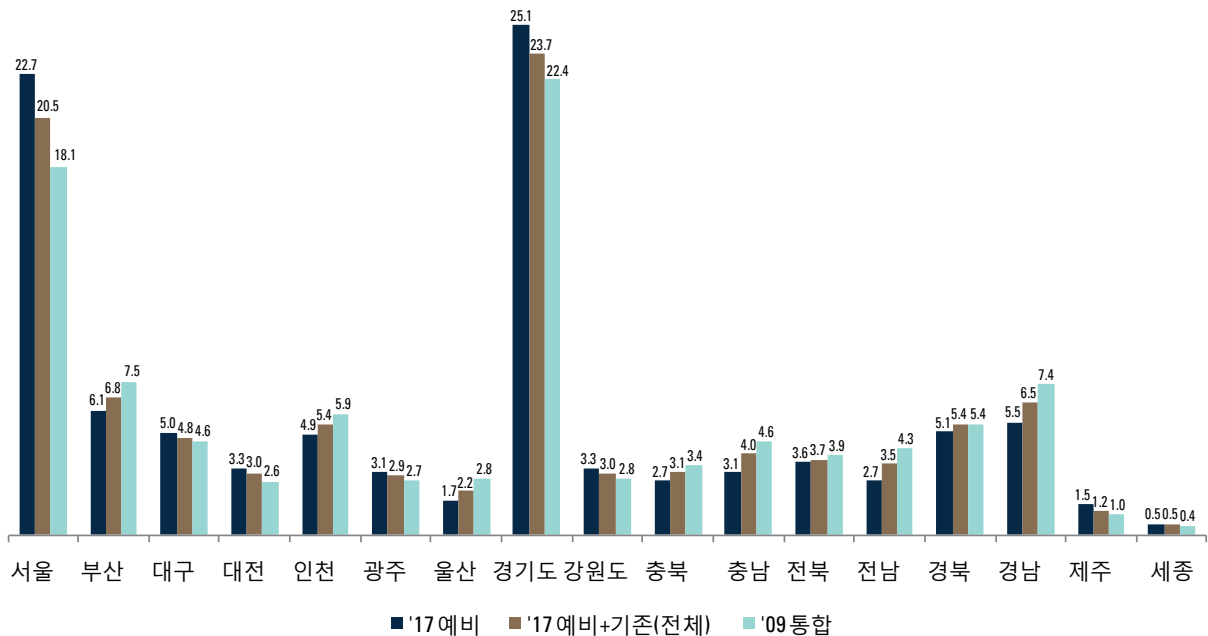
7. 가구 분포

지역별 분포

- [그림 4]를 보면 '17예비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25.1%, 서울이 22.7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부산(6.1%)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% 이하로 낮은 편임.

[그림 4] 지역별 분포

(단위: %)



자료: 2017년 예비표본 및 한국노동패널 1-20차 학술대회용 자료.

2) 통합표본 정의는 김유빈 외(2017), 『한국노동패널 1~19차년도 조사자료 User's Guide』, 한국노동연구원 9페이지 참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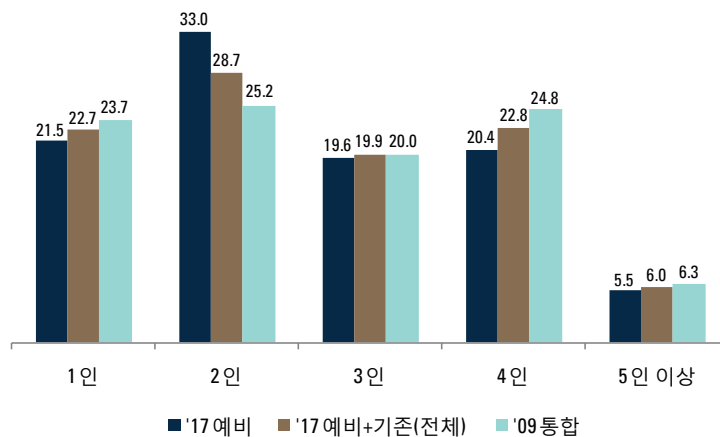
- 표본설계 시 세종과 제주도는 전국 및 광역시도별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표본가구수를 고려하였으며, '17예비에서 세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0.5%이고 제주는 1.5%로 나타남.

가구원수별 분포

- [그림 5] 가구원수별 분포의 경우 '17예비는 2인 가구가 33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1인 가구가 21.5%를 차지함.
 - 4인 가구의 경우 '09통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 데 반해 '17예비에서는 낮은 편에 속함. 이는 기존 패널이 모집단(2015년 인구주택총조사)에 비해 4인 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, 표본가구를 선정할 때 4인 가구 비중을 통제된 것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음.
 - '17예비의 평균 가구원수는 2.6인으로 나타남.
- '17예비+기준(전체)의 경우 '09통합에 비해서 2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, 4인 가구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(그림 5 참조).
 - 평균 가구원수는 '17예비+기준(전체)(2.6인)과 '09통합(2.7인)이 비슷함.

[그림 5] 가구원수별 분포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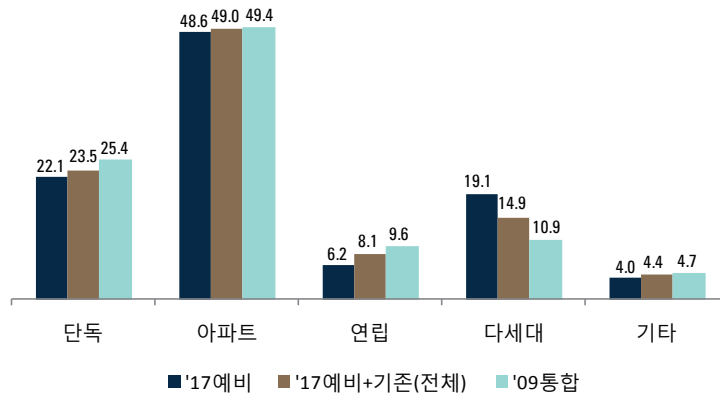
자료: 2017년 예비표본 및 한국노동패널 1-20차 학술대회용 자료.

주택유형별 분포

- [그림 6] 주택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, '17예비는 아파트가 48.6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단독(22.1%), 다세대(19.1%), 그리고 연립(6.2%) 순으로 나타남.
- '17예비+기준(전체)의 경우 다세대는 14.9%로 '09통합(10.9%)에 비해 4%포인트 높은 편이고, 단독과 연립은 약간 낮은 편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(그림 6 참조).
 - 아파트의 경우 '17예비+기준(전체)과 '09통합은 약 49%로 동일함.

[그림 6] 주택유형별 분포

(단위 : %)



자료: 2017년 예비표본 및 한국노동패널 1-20차 학술대회용 자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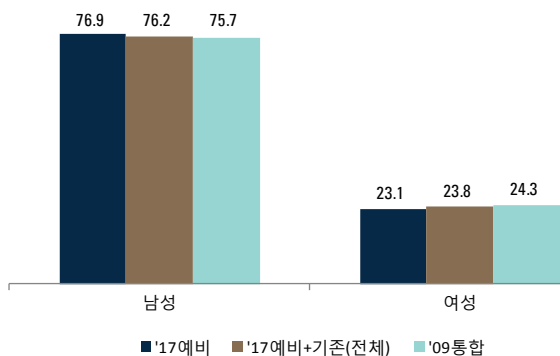
8. 가구주 및 가구원 분포

가구주 분포

- [그림 7]에서 '17예비의 경우 가구주가 남성인 비중은 76.9%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함.
 -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약 57세이며,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21.8%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약 45%로 높은 편에 속함(그림 8 참조).
- [그림 7]을 보면 '17예비+기존(전체)과 '09통합은 가구주가 남성인 비중이 약 76%로 동일함.
 -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약 56세로 동일하며,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30-40대의 경우 '09통합이 높고 50대~70대에서는 '17예비+기존(전체)이 높음(그림 8 참조).
 - '17예비에서 50대~70대의 비중이 높은 것이 '17예비+기존(전체)에 영향을 주었음.

[그림 7] 가구주의 성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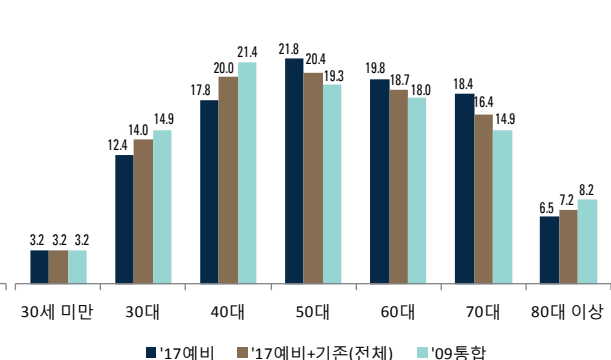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자료 : 2017년 예비표본 및 한국노동패널 1-20차 학술대회용 자료.

[그림 8] 가구주의 연령대별 분포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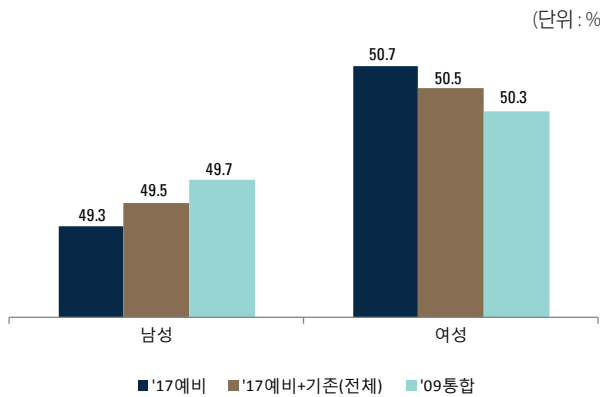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2017년 예비표본 및 한국노동패널 1-20차 학술대회용 자료.

가구원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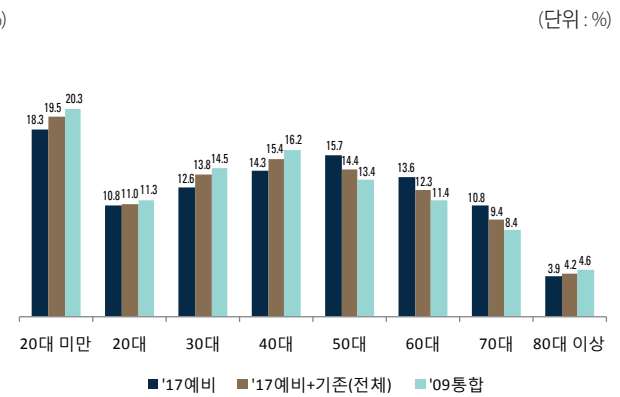
- [그림 9]에서 보듯이 '17예비의 경우 가구원의 여성(50.7%)과 남성(49.3%)의 비중은 비슷함.
 - 가구원의 평균연령은 약 44세이며,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미만이 18.3%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가 15.7%를 차지함(그림 10 참조).
- [그림 9]를 보면 '17예비+기준(전체)과 '09통합은 남녀의 비중이 절반으로 동일한 분포를 가짐.
 - 가구의 평균연령은 '17예비+기준(전체)이 약 43세로 '09통합(약 42세)보다 1세 높으며,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0대 이하의 경우 통합표본이 높고 50대~70대는 '17예비+기준(전체)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(그림 10 참조).
 - 연령대별로 두 집단 간 비중 차이가 약간 존재하나,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분포를 가짐.

[그림 9] 가구원의 성별 분포



자료 : 2017년 예비표본 및 한국노동패널 1-20차 학술대회용 자료.

[그림 10] 가구원의 연령대별 분포



자료 : 2017년 예비표본 및 한국노동패널 1-20차 학술대회용 자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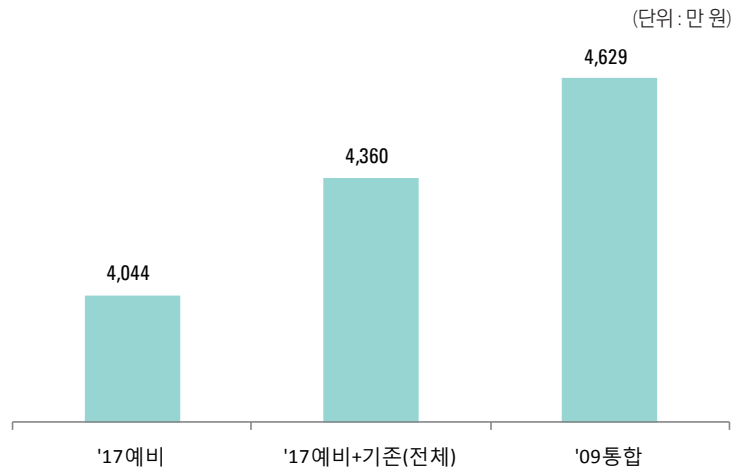
9. 가구소득 분포

- 가구소득 관련 분석 시 분가가구는 제외함.
 - 분석 변수들 중에서 '모름'이라는 응답값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, 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.

연평균 가구 총소득 분포

- [그림 11] 연평균 가구 총소득을 보면 '17예비는 4,044만 원, '17예비+기준(전체)은 4,360만 원으로 '09통합(4,629만 원)에 비해 269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남.
 - '17예비의 가구 총소득이 낮은 것이 '17예비+기준(전체)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.

[그림 11] 연평균 가구총소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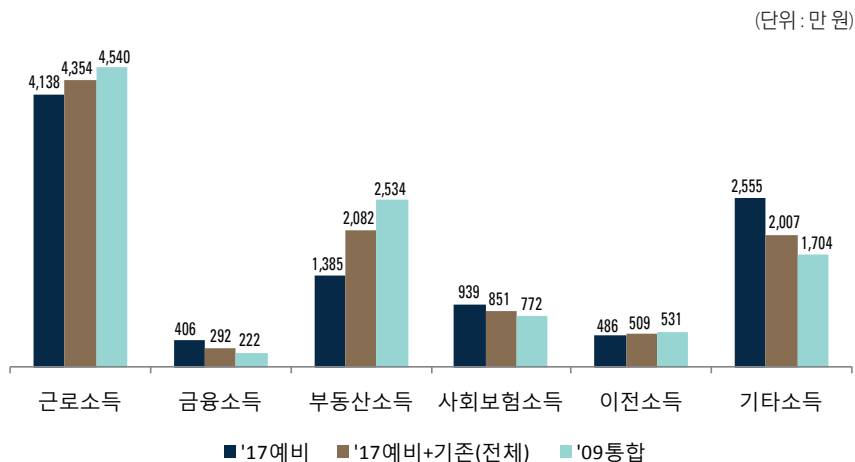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2017년 예비표본 및 한국노동패널 1-20차 학술대회용 자료.

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분포

- [그림 12]의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'17예비는 근로소득이 4,138만 원으로 가장 많음. 다음으로 기타소득(2,555만 원), 부동산소득(1,385만 원), 사회보험소득(939만 원), 이전소득(486만 원), 그리고 금융소득(406만 원)의 순임.
- '17예비+기존(전체)의 근로소득은 4,354만 원으로 '09통합(4,540만 원)에 비해서 186만 원 적고, 부동산소득은 2,082만 원으로 '09통합(2,534만 원)보다 452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남(그림 12 참조).
 - 사회보험소득과 금융소득은 '17예비+기존(전체)이 '09통합보다 높은 편임.
 - 이전소득은 '17예비+기존(전체)이 '09통합보다 약간 낮은 편이나,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중에서 차이가 가장 작음.

[그림 12]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분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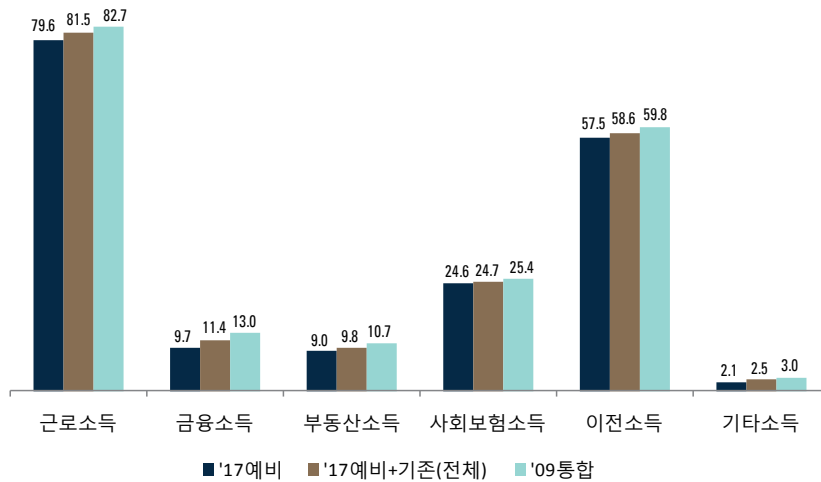
자료: 2017년 예비표본 및 한국노동패널 1-20차 학술대회용 자료.

소득원천별 가구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

- [그림 13]은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을 살펴 본 것임.
- '17예비는 근로소득이 79.6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이전소득이 57.5%로 높음.
- 기존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결과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나 비중은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음.
- '17예비+기존(전체)은 모든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에서 '09통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, 두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(그림 13 참조).

[그림 13]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

(단위: %)



자료: 2017년 예비표본 및 한국노동패널 1-20차 학술대회용 자료

- '17예비+기존(전체)의 가구소득과 관련된 결과들은 기존 한국노동패널조사보다 전반적으로 모두 수치가 낮은 편으로 나타남.
- '17예비의 가구소득과 관련된 결과들이 '17예비+기존(전체)에 영향을 준 것이며,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.
- 첫째, 보통 패널조사의 경우, 첫 번째 조사에서는 패널응답자의 경계심과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실제 소득보다 낮춰 응답하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없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음. 이는 면접원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해결 가능함.
- 둘째, 소득이 낮은 가구가 표본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. 고령층의 1인2인 가구 또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젊은 층의 1인2인 가구 집단의 비중이 높은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,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음.

10. 요약 및 시사점

-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패널대상자의 고령화, 추적실패, 이탈 및 소멸 등으로 인하여 패널 마모가 진행 중이므로, 2018년 5,000가구를 표본 추가하여 신규패널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.
- 신규패널을 구축하기 전, 2017년은 예비표본으로 6,034가구를 구축하였음.
 - 1차년도 패널탈락률을 제고하여 예비표본을 구축하였기 때문에, 신규패널이 시작하는 2018년(1차년도) 조사부터 안정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므로 패널유지율에 도움이 됨.
 - 광역시도, 동읍면부 및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전, 인천, 경기도와 충북에서는 목표표본보다 약간 부족한 편이지만, 전반적으로 할당된 목표표본과 비슷한 분포를 가짐.
- 2017년 예비표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.
 - 2017년 예비표본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25.1%, 서울이 22.7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부산(6.1%)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% 이하로 낮은 편임.
 - 가구원수별 분포의 경우, 예비표본은 2인 가구가 33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1인 가구가 21.5%를 차지함.
 - 주택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, 예비표본은 아파트가 48.6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단독(22.1%), 다세대(19.1%), 그리고 연립(6.2%) 순으로 나타남.
 - 가구주의 경우 남성인 비중이 76.9%로 상당히 높으며 평균 연령은 약 57세이고, 가구원의 경우 성별의 비중은 비슷하며 평균 연령은 약 44세인 것으로 나타남.
 - 가구 총소득은 4,044만 원이고,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 4,138만 원으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기타소득(2,555만 원), 부동산소득(1,385만 원), 사회보험소득(939만 원), 이전소득(486만 원), 그리고 금융소득(406만 원)의 순임.
- 2017년 예비표본 분석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8년 신규패널 구축 중에 있으므로, 2017년에 실시한 예비표본 구축은 양질의 자료 생산을 위한 기저효과를 가짐.
 - 2017년 예비표본 조사 결과는 2018년 신규표본 조사 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.

참고문헌

- 김유빈·박민규·변종석·최효미·권혁진·김우영·성재민·이지은·신선옥·이혜정·김기홍(2017), 『패널자료 품질개선 연구(Ⅶ)』, 한국노동연구원.
- 김유빈·이지은·신선옥·이혜정·김기홍(2017), 『한국노동패널 1~19차년도 조사자료 User's Guide』, 한국노동연구원.